

보도시점 2026. 9. 30.(수) 10:00 배포 2026. 9. 29.(화)

기후부 장관, 소양강댐 교차송전 활용 수상태양광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 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에 강원도지사 및 춘천시장과 함께 참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30일 오전 소양강댐 물문화관(춘천 신북읍 소재)에서 열리는 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한 수상태양광의 역할 및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육동한 춘천시장도 자리를 함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합천댐에 500k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달성한 이후, 현재까지 7곳*에 105.6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운영하고 있다.

* 합천 2곳(500kW, 41.5MW), 보령(2MW), 충주 2곳(3MW, 2.6MW), 소양강(8.8MW), 임하(47.2MW)

이번 비전선포식은 소양강댐에 95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여 곳에서 약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을 비롯해 충주·안동·대청·주암댐 등 5곳에 설치할 약 4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은 교차송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차송전’은 신규 송전망 건설 없이, 일조량이 풍부한 주간에는 수상태양광을, 야간이나 그 외 시간대에는 수력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는 방식이다.

교차송전을 적용할 경우 송전설비 추가 확충에 따른 비용과 시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태양광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모범 사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다목적댐의 기존 전력계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차송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신속 보급하고, 수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 개요. 끝

담당 부서	에너지전환정책실 태양광보급추진단	책임자	과 장	이주형	(044-201-5980)
		담당자	사무관	전정홍	(044-201-5982)



□ 개 요

- 일시/장소 : ‘26.9.30(수) 10:00 ~ 10:40 / 소양강댐(강원 춘천시)
- 참 석 자
 - (기후부) 장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주지방환경청장
 - (지방정부)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강유역본부장, 에너지사업처장 등

□ 주요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 식순 안내 및 내빈 소개	물문화관 지하1층
10:05~10:17	10'	▶ 인사말씀	기후부장관,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수공 사장
10:17~10:30	13'	▶ 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비전 및 사업계획 보고	수공 에너지사업처장
10:30~10:40	10'	▶ 태양광패널 서명식 및 사진촬영	장관,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수공 사장
10:40		▶ 폐 회	